

# 광주 주택보급률 105.2%... 전국 광역시 최고 수준

## 한국은행 '주택시장 부진 요인'

아파트 비율 82%...광역시 최고 분양가 상승·이주 부담 등 영향 민간공원 개발·건설업체 증가도

광주지역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주택 물량은 큰 폭으로 늘면서 주택매수심리가 위축되는 등 지역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6일 발표한 '최근 광주지역 주택시장 부진 요인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5.2%

로 6개 광역시 중 2번째로 높았다. 또 2023년 기준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81.5%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구 및 2인 이상 가구 수가 감소하고 있어 아파트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1인 가구 수는 증가했으나 1인 가구는 비아파트 주거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주택이주 부담 증가도 주택시장 부진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주택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공사비가 부담 증가, 분양가격 규제의 단계적 완화 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형성돼 주택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고금리가 지속된 가운데 신규 분양가는 상승한 반면 기존 주택 거래는 감소하고 매매가격도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처분 후 신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의 대출원리금 부담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주택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간 차이가 확대된 것도 세입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상승시켜 이주수요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시장 규모에 비해 건설업체 수가 많은 것도 주택시장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광주지역 건설업 GRDP 1000억원 당 건설업체 수는 322개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게다가 지역 건설시장에 수도권 소재 건설사들도 참여하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고정비 회수 및 영업지속 유인 등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건설업체 수의 증가는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택공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택경기가 양호했던 2020~2021년 착공된 주택들이 이후 주택경기 하강에 따라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되면서 주택시장에서 과잉공급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주지역은 타 광역시보다 주택공급이 주택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주택시장 호황기에 공급물량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실적부진이 지속되고 경영개선이 어려운 건설사에 대한 업종 전환 지원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성은 양호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 및 가구 구조변동에 따른 주거 수요 변화에 맞춰 주택공급 행태를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와 같은 중대형 아파트 중심이 아닌 소형 아파트 또는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롯데백, 연말 주얼리 선물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층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연말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주얼리 상품을 특가 할인하는 '홀리데이 스완 프로모션'을 31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매장 특유의 아이콘인 스완 디자인의 3종 네크리스 라인 홀리데이 기프트 상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골든두 매장에서 29일까지 홀리데이 및 시즌오프 기획 상품을 20%, 다이아몬드 제품을 10~20% 할인하는 '홀리데이 컬렉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현대차 '아이오닉 5', 최고 고도차 주행 기네스북

### 총 5802m 고도 차이 주파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하며 이름을 남겼다.

현대차는 전용전기차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행 가능 도로로 알려진 인도 북부의 '움링 라(해발 5799m)'에서부터 인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지닌 지역인 남부 '쿠타나드(해발 -3m)'까지 총 5802m의 고도차 주행을 문제없이 주파하며 기네스북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에 등재됐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 인도법인(HMIL)과 인도의 유

력 자동차 전문지 이보 인디아의 주행팀은 아이오닉 5를 통해 인도의 험난한 지형과 극한의 기후조건에도 불구하고 고도 차이가 최대 5802m에 달하는 4956km의 주행거리를 14일만에 거뜬히 주파하며 뛰어난 내구성과 주행성능을 입증했다. 특히 아이오닉 5는 드넓은 인도 대륙을 북에서 남까지 종단하는 과정에서 '히말라야' 산지의 영하 기온과 좁고 가파른 산길서부터 '케랄라' 해안지대의 습한 기후까지 두루 섭렵하며 자동차가 접할 수 있는 가혹한 주행환경들을 문제없이 극복해냈다.

박소영 기자

## 광주은행, '아이어워즈 코리아' 2관왕 영예

### 모바일금융·스마트앱 분야 대상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확장'

광주은행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아이어워즈 코리아(i-AWARDS KOREA) 2024'에서 모바일금융 혁신분야와 스마트앱어워드 은행분야에서 각각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아이어워즈 코리아 2024'는 국내를 대표하는 4천여명의 인터넷 전문가 및 전문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기술, UX/UI, 콘텐츠, 서비스, 디자인, 마케팅 등 총 6개 영역, 18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했던 인터넷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광주은행은 '모바일웹뱅킹(WEB)'의 지속적인 성장과 편의성을 고려한 업데이트로 모바일금융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은행 모바일웹뱅킹'은 로그인 없이



광주은행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아이어워즈 코리아(i-AWARDS KOREA) 2024'에서 모바일금융 혁신분야와 스마트앱어워드 은행분야에서 각각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은행 제공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자주 사용하는 메뉴 중심의 화면 배치, UX/UI 편의성 개선, 거래 속도 향상 등 사용자 편의성 중심의 업데이트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평가위원단도 직관적인 UI 및 한눈에 들어오는 디자인 우수성과 프로세스 간소화, 지점번호표 발급 및 팩스/이메일 서비

스 등 콘텐츠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스마트앱어워드 은행분야에서는 '광주 Wa뱅크(APP)'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 Wa뱅크'는 자주 사용하는 계좌와 카드, 메뉴를 고객이 직접 설정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고객 자산 관리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위원단은 '광주 Wa뱅크'의 직관적이고 깔끔한 디자인, 지역은행 특색에 맞는 서비스, 쉬운뱅킹·건강캠프·게임서비스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높이 평가했다.

박준준 광주은행 디지털본부장은 "광주은행 모바일웹뱅킹과 Wa뱅크를 사랑해주신 고객들에게 깔끔하고 혁신적이면서도 차별화된 특색이 담긴 광주은행만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자 노력한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비금융 생활서비스를 지속확장해 지역을 넘어 온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광주은행 서비스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금호고속, 광주·순천·동광양-김해공항 노선 운행

금호고속이 내년 1월2일부터 광주·순천·동광양-김해공항 노선을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해공항행 노선은 광주발 기준 하루 3회 운행되며 출발 시간은 오전 2시45분, 오전 4시30분, 오후 3시30분이다. 순천과

동광양(중마)에서는 1회씩 운행되며 각 오전 3시55분, 오전 4시30분에 출발한다.

김해공항발-광주 노선은 하루 2회 운행되며, 출발시간은 오전 8시(순천, 동광양 경우), 오후 9시다.

해당 노선은 광주에서 김해공항까지 약

3시간30분, 순천에서 약 2시간 20분, 동광양(중마)에서 약 1시간45분이 소요된다.

예매는 '티머니GO'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광주·순천·동광양(중마)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는 코버스 홈페이지 또는 '고속버스티머니'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 재테크 칼럼

### 과연 비트코인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지난 10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에서 브릭스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브릭스 유닛이라는 결제 화폐를 만들어 달러 대신 사용하지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위험한 실험이 될 수 있는 브릭스 유닛보다는 이미 세계에서 통용되고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제안이 우세한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놀란 트럼프는 달러에 도전하면 브릭스 국가에

100%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브릭스에는 기존의 5개국 이외에도 2023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5개국이 추가로 가입했고 20여 개의 준회원국이 있다. 만약 브릭스와 주변 국가들이 달러 결제를 거부하고 비트코인 등 달러 이외의 무역 결제 수단을 도입하게 되면 달러의 지위는 상당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 시 달러

로만 결제를 받는 미국과의 일명 '페트라달러' 계약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달러의 지위에 타격을 가했다.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역할을 했었는데 격세지감이다.

그리고 세계 기축통화에서 달러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2009년 개발단계에서부터 인플레이션을 필연적으로 유발하고 불안정하며 중앙 독선적인 달러 등 중앙화폐를 비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판하며탈중앙화를 기치로 탄생된 화폐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백서는 처음에는 논란거리조차 되지 못했지만 현재는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현실화 되고 있다. 남아메리카 등 중앙화폐의 변동성이 큰 국가들에서는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 결제가 각광을 받고 있고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공용화폐로 채택해 세계의 화제가 됐다. 트럼프의 당선

으로 비트코인은 전략비축자산으로까지 거론되면서 그 지위가 격상됐다.

반면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중국 등 적대 국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유럽, 한국 등 우방국도 가리지 않고 관세와 방위비 인상으로 경제 블록화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갈등은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마디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갈수록 도전이 세지고 있고 이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지위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달러의 역할을 대체할지도 모른다.